

코퍼스에 기반한 시 텍스트 분석

조지 허버트의 『성전』과 헨리 본의 『불꽃튀는 부싷돌』

박한나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졸업¹⁾

초록

본 논문은 코퍼스 기반 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한 양적 연구 결과가, 질적 해석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조지 허버트의 『성전』과 헨리 본의 『불꽃 튀는 부싷돌』이며, WordSmith7.0, CLAWS Web Tagger 등을 사용하여, 각 시집을 코퍼스로 구축한 후 어휘 유사도, 키워드, 고빈도 어휘, 어휘 조합, 콘코던스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허버트의 시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는 ‘의도적인 교훈시’로, 본의 시집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조명하는 ‘관조적인 묵상시’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허버트 시집의 고빈도 어휘인 ‘God’, ‘love’와 본 시집의 고빈도 어휘인 ‘day’, ‘light’를 통해 허버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은 계시와 신앙체험을 주제로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중심어에 수반된 한정 형용사 분석 결과, 허버트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사랑을 질서에 놓인 은혜로, 시간을 구원과 종말의 때로, 빛을 계시적 통로로 표현한다. 반면 본은 하나님을 친밀한 인격적 존재로, 사랑을 생기와 치유의 힘으로, 시간을 영적 체험의 순간으로, 빛을 간접적인 은혜로 표현한다. 이는 허버트가 국교회의 전통 속에서 질서 중심의 신앙을 언어화한 반면, 본은 종교적 격변기 속에서 체험 중심의 신앙을 형상화한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량, 정성 분석을 결합해 두 시인의 신학적 세계관과 시적 주제의 차이를 조망하고, 17세기 종교문학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

키워드

코퍼스, 코퍼스 언어학, 워드스미스, 조지 허버트, 헨리 본

Manuscript received June 1, 2025 / Revision received June 27, 2025 / Accepted June 28, 2025

1) 2019321717@yonsei.ac.kr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1. 서론

코퍼스(corpus)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언어 표본을 추출한 집합으로, 언어학은 물론 문학 연구에서도 그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퍼스 분석 도구의 발달로 고전 문학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해석 방식에 더해 언어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시 텍스트의 경우, 시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나 주제 구조, 문체적 경향 등을 파악하는 데 코퍼스 분석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시어를 실증적이고 통계적인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정성적 해석과의 균형 속에서 작품의 의미망을 보다 깊이 있게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조지 허버트(George Herbert, 1559-1633)의 『성전』(*The Temple*, 1633)과 헨리 본(Henry Vaughan, 1621-1695)의 『불꽃튀는 부싯돌』(*Silex Scintillans*, 1650, 1655)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시인의 영향 관계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조신권은 본의 시집에 『성전』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드러난다고 평가하며(2016, p. 394), 더어(R. A. Durr) 또한 본의 시적 발전에 허버트의 시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1962, p. 2). 반면, 그로사트(Alexander Grosart)는 본을 허버트의 단순한 모방자로 보지 않으며(1955, p. 3), 트렌치 대주교의 “본이 허버트보다 열등하나 시인으로서는 우월하다”라는 견해를 인용한다(p. 2).

이처럼 기존의 질적 연구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할 위험이 있으며, 본에 대한 논의 또한 허버트의 영향만을 강조하거나 그의 독자성을 부각시켜 두 시인을 대립적인 구도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시집을 코퍼스 분석 도구를 통해 수치화함으로써, 시인 간 영향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허버트의 『성전』과 본의 『불꽃튀는 부싯돌』을 코퍼스로 구축하여 각 시집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코퍼스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두 시집의 문학적 성격, 주제 경향, 중심어에 대한 두 시인의 어조 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3장에서는 이론 및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두 시집을 코퍼스로 구축하여, 어휘 다양성, 주제 경향, 고빈도 어휘 및 품사 분포, 주요 구문의 반복 양상을 분석하고, 중심어 기반 콘코턴스 분석을 통해 각 중심어에 대한 어조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위 세 논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은 전통적인 질적 문학 해석이 지닌 주관성과 한계를 보완하며, 두 시인의 신앙관과 두 시집의 문학적 특성을 수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방법론은 향후 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다양성과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코퍼스 기반 문학 텍스트 연구에서는 주로 산문 텍스트가 중심을 이루어왔다. 하명정(2013)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목표 코퍼스로 구축하고, 다른 비극 작품들을 참조 코퍼스로 구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Romeo’, ‘love’, ‘night’, ‘death’ 등의 어휘가 중심으로 등장함을 밝혀, 작품의 핵심 주제를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p. 443-445). 또한 이영규와 최종갑(2017)은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으로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을 분석하여, ‘memory’와 ‘remember’의 단어군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텍스트 속 인물들의 기억이 당시 아일랜드의 종교,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밝혔다(p. 148-149).

박한나와 김영미(2021)는 코퍼스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존 던과 조지 허버트의 시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던의 시집을 ‘체험적인 서정시’로, 허버트의 시집을 ‘의도적인 교훈시’로 분류하였다(p. 76). 고빈도 어휘로는 각각 ‘God’, ‘death’와, ‘God’, ‘love’가 등장함을 확인하여, 코퍼스 기반의 시 텍스트 분석이 시인의 신학적 성향과 시적 경향을 드러내는 도구로 기능함을 보였다(p. 77). 던과 허버트가 문학사에서 선후배 관계로 알려져 있듯, 본 또한 허버트를 “선배 시인”으로 여겼으므로(조신권, 2016, p. 394),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바탕으로 코퍼스 기반의 정량 분석을 통해 허버트와 본의 시집을 비교하고자 한다.

3. 이론 및 방법

3.1. 연구 대상: 조지 허버트의 『성전』과 헨리 본의 『불꽃튀는 부싷돌』

조지 허버트는 17세기 초 영국 종교개혁 이후 국교회가 확립되는 시기에 활동한 시인으로, 의회파와 입장을 공유하며 국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으나, 정권 교체로 실패하여 퇴조했다. 이후 그는 1630년 성직자로 서품되어 시골 교구에서 목회하며, 171편의 시를 모은 『성전』을 남겼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교리적인 갈등 상황에서, 『성전』은 성도의 내면을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으로 삼아 그 안에 신앙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박한나, 2022, p. 34). 이에 따라 그의

시집은 ‘의도적인 교훈시’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교감을 중심으로 한 내면적 경건주의를 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삼는다(Randolph, 1990, p. 8).

헨리 본은 17세기 중반 영국 청교도 혁명에 활동했던 의사로, 왕당파의 입장을 견지했으나, 시민전쟁 당시 의회파의 우세로 웨일스로 낙향했다. 그는 허버트의 시집을 접한 후 종교 시인으로 전향했으며(조신권, 2016, p. 391), 자연을 관조하며 자연 신비주의의 시 세계를 구축하여 『불꽃 튀는 부싯돌』을 남겼다(p. 414²⁾. 『불꽃 튀는 부싯돌』은 완고한 인간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닿아 불꽃이 일어나는 영적 각성 순간을 의미하며, 자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포착하여 초월적 진리를 탐구한다(p. 395). 그래서 그의 시는 허버트의 시보다 자연심상을 통한 서정미 표현에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p. 397).

3.2. 연구 도구 및 절차

3.2.1. 연구 도구: WordSmith7.0, CLAWS Taggers

WordSmith 7.0은 코퍼스 기반 텍스트 분석을 위한 도구로, Concord, Keywords, WordList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Concord는 특정 단어나 구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용례 분석 도구이며, Keywords는 대상 텍스트와 기준 텍스트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두드러지는 핵심 어휘를 추출한다. WordList는 어휘의 빈도 목록을 제공하여 텍스트 전체 어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Tokens(총 어절 수), Types(고유 어휘 수), TTR(어휘 다양성 비율), STTR(표준화된 TTR)³⁾ 등의 산출된 지표로 어휘 사용의 다양성과 분포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어휘 조합을 분석하는 Clusters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CLAWS Tagger(Constituent Likelihood Automatic Word-tagging System)는 영국 랭커스터 대학에서 개발한 웹 기반의 자동 품사 태깅 시스템으로, 코퍼스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약 97%에 달하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입력된 텍스트 내 각 단어의 품사를 자동으로 부여해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문장 내에서 각 어휘가 어떤 문법적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 복잡한 문장의 구조나 스타일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CLAWS가 제공하는 품사 태그셋 중,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세부적인 문법 범주를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는 C5 태그셋(CLAWS5 Tagset)을 채택하였다.

2) 본의 자연 신비주의는 일반은총(general grace)을 넘어서 자연은총(natural grace)에서 비롯된다. 이는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매개가 된다는 개념이며, 국교회 전통에 기반한 교회 중심의 신학이 의회파의 정치적 우세로 흔들리던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 만물 속에서도 발견하려는 영적 감수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종우, 2006, p. 278).

3) STTR(Standardized Type-Token Ratio)는 전체 어휘 수 대비 고유 어휘 수의 비율인 TTR의 한계를 보완한 지표로, 일정한 길이(예: 1,000단어)마다 TTR을 계산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텍스트 길이의 영향을 줄여 보다 안정적으로 어휘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다.

3.2.2. 연구 절차

1. 코퍼스 수집 및 명명: ProQuest에서 허버트의 『성전』과 본의 『불꽃튀는 부싷돌』 텍스트(.txt)를 수집하여 각각 TTC(The Temple Corpus)와 SSC(Silex Scintillans Corpus)로 명명하였다. 각 코퍼스는 원본과 전처리 버전으로 구분하였다⁴⁾.
2. 어휘 유사도 및 주제 경향 확인: 전처리 코퍼스를 WordList의 통계 지표로 분석하여 어휘 다양도와 유사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KeyWords 기능으로 각 코퍼스에서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어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코퍼스의 주제 경향을 살펴보았다.
3. 중심어 및 어휘 조합 확인: 전처리 코퍼스를 WordList 기능으로 분석하여 고빈도 어휘를 추출한 후, CLAWS Tagger를 이용해 상위 100개 어휘의 품사를 분석하고 중심어를 선별하였다. 또한 Clusters 분석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어휘 조합을 확인하였다.
4. 중심어 수식 양상 분석: 원본 코퍼스를 Concord 기능으로 분석하여 중심어의 문맥 속 용례를 분석하였다. 중심어와 결합되는 한정 형용사의 수식 양상을 파악하고, 기존의 질적 해석과 연계하여 두 시인의 작품 세계를 확인하였다.

4. 분석 결과

4.1. 통계 기능으로 유사도 분석

WordSmith의 통계 기능을 활용해 전처리된 TTC와 SSC의 어휘 분포와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이 절차의 목적은 두 코퍼스에 나타나는 단어 사용 폭과 어휘 차이 및 공통점을 파악하여 언어적 특성과 문체적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다. 다음은 TTC와 SSC의 통계 수치를 비교한 표이다.

표 1 TTC와 SSC의 통계

	TTC	SSC
file size (bytes)	226,676	200,702
tokens (running words)	38,157	35,307
Types (distinct words)	5,013	5,060
TTR	13.17	14.33
STTR	45.52	48.85

4) 원본 코퍼스는 작품의 형식을 그대로 보존해 정성적 해석에 활용되며, 전처리 코퍼스는 정량 분석을 위해 기호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한 자료이다. 이 두 버전의 병행 사용은 분석의 정확성과 균형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통계 결과를 보면, 두 코퍼스의 TTR(Types / Tokens × 100)은 TTC가 13.17%, SSC가 14.33%로, 어휘 다양성 비율 면에서 SSC가 약 1% 높음을 알 수 있다. 두 코퍼스의 유사한 TTR 수치는 두 시인이 어휘 다양성 측면에서 유사한 수준의 어휘를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STTR를 보면, TTC는 45.52 %, SSC는 48.85 %로 SSC가 TTC보다 약 3% 높은 값을 보인다. 이는 SSC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어휘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음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TTR 수치는 본이 허버트에게 시적 영향을 받았다는 기존 논의를 정량적으로 뒷받침하고, STTR 수치는 본이 허버트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닌, 더욱 풍부한 어휘를 구사한 시인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4.2. KeyWords 기능으로 주제 경향 분석

WordSmith의 KeyWords 기능을 활용하여 두 코퍼스를 각각 목표 코퍼스와 참조 코퍼스로 설정한 뒤, 상호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코퍼스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어휘를 도출하였다. 이 절차의 목적은 두 코퍼스에서 통계적으로 두드러진 단어를 추출해 각 작품의 주제와 관심사를 밝히는 데 있다. 다음은 TTC와 SSC의 키워드 분석 결과이다.

표 2 TTC와 SSC의 KeyWord List

TTC				SSC			
N	Key Word	Freq	%	N	Key Word	Freq	%
1	c	63	0.17	1	sun	51	0.14
2	grief	101	0.26	2	poor	43	0.12
3	sinne	83	0.22	3	dear	36	0.10
4	poore	48	0.13	4	blood	41	0.12
5	sinnes	36	0.09	5	glory	29	0.08
6	church	40	0.10	6	bright	56	0.16
7	glorie	31	0.08	7	stars	25	0.07
8	ye	30	0.08	8	days	25	0.07
9	doore	22	0.06	9	sins	24	0.07
10	here	52	0.14	10	only	24	0.07

TTC의 키워드 분석에서 상위에 나타난 ‘c’는 「희생」(“The Sacrifice”) 62연에서 반복되는 후렴구 “Was ever grief like mine?”이 “Was ever grief, &c.”로 축약되어 반복되면서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grief’의 빈도 또한 반복 구문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해당 빈도수를 제외하면 실제 출현 빈도는 약 40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TTC의 실질적 핵심 키워드는 ‘sinne’으로 볼 수 있으며, ‘sinne’(83회)과 복수형 ‘sinnes’(36회)를 합하면 총 119회로, 모두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된다. 허버트 시집에서 ‘sinne’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는 어휘로 볼 수 있다. 또한 ‘church’는 그가 성도

의 영혼의 내적 성전과 교회 질서에 관심이 있었다는 질적 연구를 뒷받침하는 어휘로 볼 수 있다.

반면 SSC에서는 ‘sun’, ‘bright’, ‘stars’, ‘days’ 등 자연과 우주, 빛 등의 어휘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본의 자연 신비주의적인 신학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sins’(24회)도 등장하나, 빈도수는 TTC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poore/poor’, ‘glorie/glory’ 등은 두 시집 모두에 등장하나, 이는 시대적 언어 변화에 따른 형태상의 차이로, 개별 시집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는 핵심 키워드로 보긴 어렵다. 이처럼 키워드 분석을 통해 두 코퍼스는 공통된 신학적 주제를 공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TTC는 내면 정확에 집중된 어휘가 두드러진 반면, SSC는 자연과 빛에 대한 어휘가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WordList 기능으로 중심어 추출

WordSmith의 WordList 기능을 활용하여 두 코퍼스의 고빈도 어휘를 추출하고, CLAWS Web Tagger로 품사 태그를 부착하여 품사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 절차의 목적은 빈도 높은 유의미한 명사 분포를 파악하여 작품 주제와 관련된 중심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아래 표는 TTC와 SSC의 WordList 및 품사 태깅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TTC와 SSC의 WordList와 품사 태깅

TTC					SSC				
N	Word	Freq	%	Tag	N	Word	Freq	%	Tag
1	and	1,533	4.02	CJC	1	and	1,967	5.57	CJC
2	the	1,167	3.06	AT0	2	the	1,129	3.24	AT0
⋮	⋮	⋮		⋮	⋮	⋮			⋮
39	are	166	0.44	VBB	39	day	112	0.35	NN1
40	this	161	0.42	DT0	40	did	112	0.35	VDD
41	by	153	0.40	AVP	41	here	120	0.34	AV0
42	doth	148	0.39	VDZ	42	light	116	0.33	VVI
43	do	142	0.37	VDB	43	are	115	0.33	VBB
44	god	138	0.36	NN1	44	one	115	0.33	PNI
⋮	⋮	⋮		⋮	⋮	⋮			⋮
50	love	122	0.32	NN1	50	those	106	0.30	DT0
⋮	⋮	⋮		⋮	⋮	⋮			⋮
55	man	116	0.30	NN1	55	thought	100	0.28	AV0
56	heart	115	0.30	NN1	56	whose	99	0.28	DTQ
57	our	113	0.30	DPS	57	love	98	0.28	NN1
58	them	113	0.30	PNP	58	him	96	0.27	PNP
59	will	113	0.30	NN1	59	god	94	0.27	NN1
⋮	⋮	⋮		⋮	⋮	⋮			⋮

분석 결과, 약 40위권까지는 기능어가 주를 이루며, ‘God’과 ‘love’는 두 코퍼스에서 확인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공통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어휘를 제외한 고빈도 명사 목록은 각 코퍼스가 지향하는 상이한 주제 경향을 드러낸다. TTC에서는 ‘man’, ‘heart’, ‘grief’, ‘lord’, ‘sinne’, ‘mine’, ‘day’, ‘life’, ‘soul’ 등의 어휘가 100위권 안에 등장했으며, 이는 허버트의 시집이 인간의 내면에 집중함을 알 수 있다. 반면 SSC에서는 ‘light’, ‘day’, ‘man’, ‘life’, ‘night’, ‘heart’, ‘way’, ‘death’, ‘dust’ 등의 어휘가 100위권 안에 등장했으며, 이는 본의 시집이 자연과 시간에 대한 관심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SC의 고빈도 명사 중 ‘light’는 자동 품사 태깅 결과에서는 다품사 특성으로 인해 동사로 분류되었다. 이는 자동 태깅 도구가 문장 단위가 아닌 어휘 단위로 품사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로 볼 수 있다. ‘light’는 SSC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조신권, 2016, p. 444), 어휘의 실제 품사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116개의 예문을 대상으로 콘코던스 분석을 실시한 결과, ‘light’는 명사(90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형용사(20회), 동사(6회)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5. 콘코던스 질적 분석 비교에서는 TTC의 고빈도 어휘인 ‘God’과 ‘love’, SSC의 고빈도 어휘인 ‘day’와 ‘light’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문맥 내 용례와 수식 양상을 분석하겠다.

4.4. Clusters 기능으로 어휘 조합 확인

WordSmith의 Clusters 기능을 활용하여 각 코퍼스에 등장하는 어휘 조합이 시적 구조 내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는 방식을 확인하였다. 이 절차의 목적은 단어들의 반복 결합과 자주 등장하는 어구 패턴을 식별해 시어들이 형성하는 의미망과 주제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다. 다음은 TTC와 SSC의 2-word Clusters 결과이다.

표 4 TTC와 SSC의 2-word Clusters

TTC			SSC		
Rank	Type	Freq	Rank	Type	Freq
1	ever grief	61	1	in the	61
2	was ever	61	2	all the	44
⋮	⋮	⋮	⋮	⋮	⋮
5	my heart	50	5	in a	34
6	ev n	49	6	the sun	32
7	my god	49	7	d and	31
8	thou dost	49	8	in thy	31
9	all the	46	9	my god	31
⋮	⋮	⋮	⋮	⋮	⋮

TTC			SSC		
Rank	Type	Freq	Rank	Type	Freq
20	heav n	34	20	my soul	26
21	all my	33	21	the day	25
⋮	⋮	⋮	⋮	⋮	⋮
27	my soul	29	27	and thy	23
28	do not	28	28	no more	22
29	and all	27	29	the way	22
30	I have	26	30	thee and	22
31	the world	26	31	thou dost	22
⋮	⋮	⋮	⋮	⋮	⋮

상위 100위까지 분석한 결과, TTC에서는 ‘my heart’, ‘my God’, ‘my soul’, ‘the world’, ‘the church’, ‘the way’, ‘the sunne’ 등이 등장했으며, 이는 허버트가 공동체적이고 구조적인 신앙관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SSC에서는 ‘the sun’, ‘my God’, ‘my soul’, ‘the day’, ‘the way’, ‘my heart’, ‘thy love’ 등이 등장했으며, 이는 본이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신앙관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두 코퍼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my heart’, ‘my God’, ‘my soul’, ‘the way’, ‘the sun/sunne’ 등의 어휘 조합은 두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천착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허버트는 개인의 내적 신앙 여정에 집중하고, 본은 외적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신의 현존에 주목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4.5. 콘코던스와 질적 분석 비교

WordSmith의 Concordance 기능과 CLAWS Web Tagger를 활용하여, 두 코퍼스의 중심어에 선행하는 형용사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였다. 원본 코퍼스에 품사를 부착한 결과, 예를 들어 ‘O let me still Write thee great God, and me a childe:’라는 문장은 ‘O_ITJ let_VVB me_PNP still_AV0 Write_VVB thee_PNP great_AJ0 God_NP0 ,_PUN and_CJC me_PNP a_AT0 childe_NN1 :_PUN’와 같이 태깅된다. 이 중 중심어를 전치 수식하는 형용사(AJ0)만을 선별하였다. 다만 CLAWS는 현대 영어 기반의 태거이므로, 중세 영어로 구성된 TTC에서는 형용사 인식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태깅 누락 가능성을 전제한 채, 수집된 형용사 표본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5 TTC와 SSC의 중심어에 대한 한정 형용사 추출

	TTC	SSC
God	great(3), sweet, almighty	dear(4), eternal, glorious(2), living, mighty, mock
Love	gentle, great, strange, unmeasurable, wondrous	almighty(2), antient, cold, old, pity, pure(2), quickning, rich, strange,
day	ev'ry(4), great, high, sweet	bright, full, glad, great(2), long, mid, the other(2), perfect, dewy, true, weeping, white
Light	new	bordering, cloudless, discerning, early, everlasting, exterior, great(3), leading, fire-liquid, little, mighty, new(2), only, sacred, shining, sincere, all-surprizing, true(5)

각 중심어에 대한 한정 형용사 수집 결과, TTC는 형용사 사용이 단순하고 평이한 반면(조신권, 2016, p. 330), SSC는 감각적이고 철학적인 수식어를 폭넓게 활용하여, 더욱 다층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p. 441). 이처럼 형용사 사용에서도 허버트는 제한된 수식어로 신에 대한 절대성과 개인의 내면적 신앙을 표현하며, 본은 풍부한 수식어로 신의 초월성과 세계의 상징성을 형이상학적으로 확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식어 사용의 차이는 허버트가 지향한 도덕적, 경건 중심의 신학과, 본이 형상화한 신비적, 감각적 신앙 경험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각 중심어와 해당 형용사의 사용이 실제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다.

4.5.1. 'God'에 대한 문맥 파악

TTC에서는 'great', 'sweet', 'almighty' 등의 수식어를 통해 절대적이고 경건한 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위계적이고 숭고한 특성을 강조한다. 반면 SSC에서는 'dear', 'eternal', 'glorious' 등의 수식어를 통해 감성적이고 친밀한 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mock'은 고난받는 신의 면모를 드러낸다. 다음은 'God'에 대한 두 코퍼스의 콘코던스 라인이다.

표 6 TTC와 SSC의 'God' 콘코던스 라인

	N	Concordance
TTC	21	faith in me. O let me still Write thee great God, and me a childe: Let me be soft and
	22	The fight is hard on either part. Great God doth fight, he doth submit. All Solomon
	23	of dust from heav'n to hell? Will great God measure with a wretch? Shall he thy sta
	110	hange, thou art the same; The same sweet God! why leav'st thou me, The sonne, in whom
	111	s may save thee. Thwart not th' Almighty God: O be not crosse. Fast when thou wilt; b
SSC	6	tched i and most unkind exclude my dear God from my mind exclude him thence who
	7	light and increase her own my dear dear God i do not know what lodgd thee then nor
	8	ins alone outweighed them all o my dear God my life my love most blessed lamb and m
	9	he passion o my chief good my dear dear God when thy blest bloud did issue forth fo

N	Concordance
11	g thee so rarely known the book eternal God maker of all that have lived here since
13	end! Psalm 65 Sions true, glorious God is my sole stay, He is my Sun, and
14	ithout end psalm 65 sions true glorious God on thee praise waits in all humility al
21	one jesvs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the sacred virgin mary my god thou
24	oly spirit grieves therefore the mighty God , the eternal king doth grieve for dust a
25	at can tie up his hands that dares mock God and man seek not the same steps with

조사한 한정 형용사를 보면, 허버트는 하나님을 경배와 권위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어휘를, 본은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God’을 수식하는 한정 형용사가 포함된 TTC의 콘코던스 라인과 관련된 시행들이다.

- (1) “오, 저로 늘 당신을 / 위대하신 하나님, 저를 아이라고 새기게 하소서”(O let me still / Write thee great God, and me a childe)(6) - 「거룩한 세례」(“H. Baptisme”)
- (2) “주님, 우리가 변할지라도 당신은 동일하시니, / 사랑과 빛의 늘 감미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Lord, though we change, thou art the same; The same sweet God of love and light)(25-26) - 「성령강림절」(“Whitsunday”)
- (3) “전능하신 하나님을 방해하지 말라. 오, 거스르지 말라. 원할 때 금식하라. 이것은 유익이고 손해가 아니다.”(Thwart not th'Almighty God: O be not crosse. / Fast when thou wilt; but then 'tis gain, not losse.)(395-396) - 「물두멍」(“Perirrhanterium”)

이 세 구절에서 허버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며, 변치 않는 권위자로 인식한다. 「거룩한 세례(6)」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아이”라는 대조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겸손한 자아 인식을 드러낸다. 「성령강림절」에서는 “감미로우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원성과 변함없는 신실함을 강조한다. 「물두멍」에서 화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신앙이 유익하다는 기독교적 교훈을 제시한다. 이처럼 허버트는 하나님을 절대적 권위자, 불변의 존재, 순종해야 할 대상 등으로 묘사한다. 다음은 SSC의 시행들이다.

- (1)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 그때 무엇이 당신을 거하시게 했는지, 어디에, 어떻게 거하셨는지를.”(My dear, dear God! I do not know / What lodgd thee then, nor where, nor how.)(11-12) - 「처소」(“The dwelling-place”)
- (2) “시온의 참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 찬양이 온전한 겸손함으로 주를 기다립니다.”(Sions true, glorious God! on thee / Praise waits in all humility.)(1-2) - 「시편 65」(“Psalm 65”)
- (3)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께서 / 티끌을 위해 슬퍼하시니, 티끌은 노래합니다.”(The

mighty God, th' eternal King / Doth grieve for Dust, and Dust doth sing.)(39-40) -「비참」(“Misery”)

이 세 구절에서 본은 하나님을 인간과 상호작용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처소」에서 화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부르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동시에 나타낸다. 「시편 65」에서 화자는 하나님을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 묘사하며, 기도와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밝혀, 능동적인 신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비참」에서 화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슬퍼하시고, 인간은 그 사랑에 노래로 응답한다는 정서적 관계를 부각하여, 하나님을 인간의 연약함에 공감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이처럼 본은 하나님을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인 존재로 그려낸다.

4.5.2. 'love'에 대한 문맥 파악

TTC에서는 ‘gentle’, ‘great’, ‘strange’, ‘unmeasurable’, ‘wondrous’ 등의 수식어를 통해 신비롭고 무한한 은혜의 사랑을 주로 강조한다. 반면 SSC에서는 ‘almighty’, ‘antient’, ‘cold’, ‘old’, ‘pitty’, ‘pure’, ‘quickning’, ‘rich’, ‘strange’ 등의 수식어를 통해 사랑을 감각적, 철학적 언어로 다양하게 묘사한다. 다음은 ‘love’에 대한 콘코던스 라인이다.

표 7 TTC와 SSC의 'love' 콘코던스 라인

	N	Concordance
TTC	28	prove If stonie hearts will melt with gentle love . But who does hawk at eagles with a dove?
	29	grows old, when as the heat Of thy great love once spread, as in an urn Doth closet up
	88	ides, thy death and bloud Show'd a strange love to all our good: Thy sorrows were in
	113	se of our request. Of what unmeasurable love Art thou possest, who; when thou coulds
	121	nd night. Surely thy sweet and wondrous love hall measure all my dayes; And as it n
SSC	4	m yell but o thy love thy rich almighty love that saved my soul and checkt their fur
	5	I and he was sure to view them almighty love where art thou now mad man sits down
	21	n this last and lewdest age thy antient love on some may shine for though we hourly
	26	have shewed them me to kindle my cold love dear beauteous death the jewel of the j
	67	wine for thy blood give him with pitty love two flowres that grew with thee above
	68	friend and o my soul awake did in pure love descend to die here for thy sake if tho
	69	y grace so farr as to make man all pure love flesh a star a star that would neer set
	70	move and hatched all with his quickning love as this loud brooks incessant fall in s
	71	nd as thy care bounds these so thy rich love doth broach the earth and lesser brooks
	73	riends discompose, To shew what strange love he had to our good He gave his sacred

조사한 한정 형용사를 보면, 허버트는 사랑을 구속과 질서 안에 놓인 은혜로 이해하는 어휘를, 본은 사랑을 치유와 감정을 이끄는 능동적인 힘으로 표현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love'를 수식하는 한정 형용사가 포함된 TTC의 콘코던스 라인과 관련 시행들이다.

- (1) “나는 아무 대답하지 않고, 인내로 증명할 뿐이다. /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랑으로 녹을지
를.”(I answer nothing, but with patience prove / If stonie hearts will melt with gentle
love)(89-90) -「희생」(“The Sacrifice”)
- (2) “게다가, 당신의 죽음과 피는 우리 모두의 / 유익에 대한 신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
다.”(Besides, thy death and bloud / Show'd a strange love to all our good)(26-27)
-「순종」(“Obedience”)
- (3) “분명 당신의 감미롭고 놀라운 사랑은 / 제 모든 날을 판단하리니, / 그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듯, / 제 찬양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Surely thy sweet and wondrous love / Shall
measure all my dayes; / And as it never shall remove, / So neither shall my
praise.)(21-24) -「시편 23」(“The 23 Psalme”)

세 구절에서 허버트는 사랑의 신비, 희생, 불변성의 특성 등을 묘사한다. 「희생」에서는 화자는 인내를 통해 완고한 마음도 “부드러운 사랑”으로 녹일 수 있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인내의 속성을 강조한다. 「순종」에서 화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통해 나타난 “신비한 사랑”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과 연결됨을 보여준다. 「시편 23」에서 화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미롭고 놀라운 사랑”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삶의 척도이자 기준이 되어, 화자의 모든 날을 판단하고, 형성한다고 밝힌다. 이처럼 허버트는 사랑을 하나님의 신비롭고 절대적인 본성, 인간 삶을 지속하게 하는 힘으로 그려낸다. 다음은 SSC의 시행들이다.

- (1) “오, 당신의 사랑! 풍성하고 전능하신 그 사랑이 / 제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But O thy
love! thy rich, almighty love / That sav'd my soul,)(5-6) -「악화」(“The Relapse”)
- (2) “그는 우리를 향해 지닌 신비한 사랑을 보여 주시려고, / 우리의 수액과 강장제로서 거룩한 피
를 내어 주셨다.”(To shew what strange love he had to our good / He gave his sacred
bloud / By wil our sap, and Cordial;)(25-27) -「수액」(“The Sap”)
- (3) “당신이 은혜를 이토록 많이 베푸사, / 인간을 순전한 사랑으로, 육체를 별로 빛나게 하셨습니
다.”(That thou wert pleas'd to shed thy grace so farr / As to make man all pure love,
flesh a star!)(3-4) -「상사병」(“Love-sick”)

본은 사랑에 대한 생명성, 구원성, 존재의 변화 등을 묘사한다. 「악화」에서 화자는 사랑을 “풍성하고 전능하신 사랑”으로 묘사하며, 사랑으로 인한 내면적 체험을 고백한다. 「수액」에서도 “신

비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⁵⁾, 화자는 사랑을 “수액”과 “강장제”로 비유하고, 신의 거룩한 피가 인간의 생명과 활력이 되는 구원의 원천임을 드러낸다. 「상사병」에서 화자는 인간이 하나님 의 사랑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재창조 되어, 그 결과 육체가 별처럼 빛나게 되었다는 존재론적 변화 경험을 묘사한다(조신권, 2016, p. 440). 이처럼 본의 작품에서 사랑은 감정적, 감각적 체험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난다.

4.5.3. ‘day’에 대한 문맥 파악

TTC에서는 ‘ev’ry’, ‘great’, ‘high’, ‘sweet’ 등의 수식어를 통해 시간의 신성함을 나타낸다. 반면 SSC에서는 ‘bright’, ‘full’, ‘glad’, ‘great’, ‘long’, ‘mid’, ‘the other’, ‘perfect’, ‘dewy’, ‘true’, ‘weeping’, ‘white’ 등의 수식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정서와 상태의 시간을 표현한다. 다음은 ‘day’에 대한 콘코던스 라인이다.

표 8 TTC와 SSC의 ‘day’ 콘코던스 라인

	N	Concordance
TTC	26	suddenly dost raise and race, And ev’ry day a new Creatour art. O fix thy chair of
	27	of sinnes To make good that which ev’ry day he winnes. Here Sinne took heart, and f
	28	much more. Affliction Kill me not ev’ry day , Thou Lord of life; since thy one death
	29	th not pray, Maketh two nights to ev’ry day . Who by aspersions throw a stone At th’h
	32	das-Jew. Thus we prevent the last great day , And judge our selves. That light, which
	33	key Is best to celebrate this most high day . Consort both heart and lute, and twist
	45	And among those his soul. Vertue Sweet day , so cool, so calm, so bright, The bridal
SSC	13	h home think on thy dream a calm bright day a land of flowers and spices the word g
	29	-worms bed yet burnest thou here a full day while i spend my rest in cares and to t
	30	ght solemnities did shew the third glad day through two sad nights iele get me up b
	31	my way watching the break of thy great day admission how shril are silent tears wh
	32	the ways they pass as at the last great day and run in their white robes to seek th
	37	ead sleep quitting thy way all the long day yet sure my god i love thee most alas t
	40	ordering light o for thy center and mid day for sure that is the narrow way the nig
	67	day to spend my hour] i walkt the other day to spend my hour into a field where i s
	68	but ordained no rest [i walkt the other day to spend my hour] i walkt the other day
	69	y light that i may shine unto a perfect day and warme me at thy glorious eye o take
	107	in shining with joy like dewy days this day i bring for all thy pain thy causless p
	117	t bed of my lords dead shall bring true day and make dust see the way to immortalit
	118	leased and all his life a rainy weeping day for though he should forsake the world
	121	d no glass white sunday vwellcome white day a thousand suns though seen at once wer

5) “신비한 사랑”이라는 표현은 두 시집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며, 이는 톨의 시집에서도 나타나, 형이상학과 시인들이 공유하는 어휘임을 밝혔다(박한나 and 김영미, 2021, p. 76).

조사한 한정 형용사를 보면, 허버트는 시간을 하나님의 계시와 종말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어휘를, 본은 시간을 내면의 정서와 감정을 반영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day’를 수식하는 한정 형용사가 포함된 TTC의 콘코던스 라인과 관련된 시행들이다.

- (1) “당신의 신성한 은혜의 세계는 / 당신께서 갑자기 일으켜 운행하시니, / 당신은 매일 새로운 창조주가 되십니다.”(But thy diviner world of grace / Thou suddenly dost raise and race, / And ev'ry day a new Creatour art.)(5-7) - 「감격(2)」(“The Temper”)
- (2) “그렇게 우리는 최후의 큰 날을 앞당기고, / 스스로를 심판한다.”(Thus we prevent the last great day, / And judge our selves.)(19-20) - 「자책」(“Self-condemnation”)
- (3) “달콤한 날, 그렇게 시원하고 평온하고 밝은 / 그대는, 땅과 하늘의 결혼식이다. / 밤에 이슬은 그대의 추락에 울리니, / 그대는 분명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Sweet day, so cool, so calm, so bright, / The bridall of the earth and skie: / The dew shall weep thy fall to night: / For thou must die.)(1-4) - 「미덕」(“Vertue”)

세 구절에서 허버트는 시간을 영적 의미의 시간으로 보고, 구원의 질서 속에서의 시간으로 이해한다. 「감격(2)」에서 화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매일” 펼쳐진다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은총의 반복성과 재창조성을 강조한다. 「자책」에서 “최후의 큰 날”은 심판의 날로서, 화자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판단함으로 그날을 미리 당긴다고 표현하며, 이 시간을 일상에서의 영적 각성의 순간으로 바라본다. 「미덕」에서 “달콤한 날”은 시간을 하루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화자는 시간을 죽음을 향한 유한한 아름다움으로 형상화한다. 이처럼 허버트는 시간을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나 종말적 심판으로 묘사한다. 다음은 SSC의 시행들이다.

- (1) “그러니 옛 방식을 지켜라! 그들의 가래를 뱉어내고 / 그대의 가슴을 본향으로 채워라. 그대의 꿈을 생각하라 / 고요하고 밝은 날을!”(Then keep the antient way! / Spit out their phlegm / And fill thy brest with home; think on thy dream: / A calm, bright day!)(43-46) - 「권고」(“The Proffer”)
- (2) “당신은 위대한 날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단장하고 길 위에 서 있을 저를 찾으실 것입니다.”(Thou'lt find me drest and on my way, / Watching the Break of thy great day.)(47-48) - 「여명」(“The Dawning”)
- (3) “그러나 슬픔과 오래된 상처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면, / 그의 삶은 온통 비 내리고 흐느끼는 날이 된다.”(Yet grief and old wounds make him sore displeas'd, / And all his life a rainy, weeping day.)(35-36) - 「죽은 나무」(“The Timber”)

세 구절에서 본은 시간을 개인적 감정, 내면의 상태, 영적 기다림의 시간 등으로 표현한다. 「권고」에서 “고요하고 밝은 날”은 “본향”인 천국에서의 시간과 동의어로, 화자는 이를 신앙이 회

복되는 시간이자 천국에서의 시간으로 이해한다⁶⁾). 「여명」에서 “위대한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과 재림의 날을 의미하며, 화자를 깨우고 준비시키는 새벽이나 여명의 시간으로 표현한다. 「죽은 나무」에서 “비내리고 흐느끼는 날”은 부정적인 정서의 시간으로, 슬픔과 상실에 빠진 화자의 내면의 상태를 드러낸다. 이처럼 본은 시간을 내면의 정서나 개인적 영적 체험의 은유로 사용하며, 감각과 정서를 강조한다.

4.5.4. ‘light’에 대한 문맥 파악

TTC에서는 ‘new’라는 단 하나의 수식어가 등장했으며, 빛을 새로운 깨달음이나 계시의 시작으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반면 SSC에서는 ‘ordering’, ‘cloudless’, ‘discerning’, ‘early’, ‘everlasting’, ‘exterior’, ‘great’ 등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빛의 개념이 강하고 다양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light’에 대한 콘코던스 라인이다.

표 9 TTC와 SSC의 ‘light’ 콘코던스 라인

	N	Concordance
TTC	29	each me thy love to know; That this new light , which now I see, May both the work and
	14	long night thy edges and thy bordering light o for thy center and mid day for sure t
	19	ar more bright then the noons cloudless light for whose dry dust green branches bud a
	23	tuous debate life is a fixed discerning light a knowing joy no chance or fit but ever
	24	ave the first glad tidings of thy early light and resurrection from the earth and nig
	27	ur souls and bodies both in everlasting light waset not enough that thou hadst paid t
	28	s about guided by faith not by exterior light who spills no blood nor spreads thorns i
SSC	35	w i might descry some part of his great light i summoned nature peirced through all h
	36	o look for though thou doest that great light lock and by this lesser commerce keep y
	37	heads yet while some rays of that great light shine here below within thy book they n
	45	have our sure guardian and our leading light what thou didst hope for and believe we
	47	thy heavens some say are a firie-liquid light which mingling aye streames and flames
	48	mystery but this neer done that little light i had was gone it grieved me much at la
	51	breaks forth then comes he whose mighty light made his clothes be like heaven all br

조사한 한정 형용사를 보면, 허버트는 빛을 하나님께 이르는 수직적 계시의 매개로 이해하는 어휘를, 본은 빛을 감각적 은총의 상징으로 형상화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6) 이 구절은 허버트의 시 「물두멍」에서 “오, 앵글랜드여! 죄로 가득하나, 대부분은 게으르니, / 가래를 뱉고, 그대의 가슴을 영광으로 채워라.”(O England! full of sinne, but most of sloth; / Spit out thy flegme, and fill thy brest with glorie:)(91-92)라는 구절과 유사하다.

‘light’를 수식하는 한정 형용사가 포함된 TTC의 콘코던스 라인과 관련된 시행이다.

- (1) “당신의 사랑을 알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새로운 빛이, / 그
일과 일꾼에게 보일 것입니다. / 그러면 태양의 빛줄기를 따라 저는 당신께 올라갈 것입니
다.”(Teach me thy love to know; / That this new light, which now I see, / May both
the work and workman show: / Then by a sunne-beam I will climbe to thee.)(17-19)
-「아침예배」(“Mattens”)

이 구절에서 허버트는 빛을 신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내적 계시와 영적 상승 등으로 이해한
다. 「아침예배」에서 “새로운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사랑의 계시이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
로로 드러난다. 이 빛을 통해 화자는 사랑을 배우고 이해하며, 이 빛이 “일과 일꾼”인 화자 자신과
그가 감당하는 사명에도 드러나기를 바란다. 또한 “태양의 빛줄기를 따라” 하나님께 오른다는 표
현에서 빛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이자 신앙 성장과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영적 매개체로 작용한
다. 따라서 허버트의 작품에서 빛은 하나님께 이르는 계시적 통로로서, 영적 상승과 하나님의 사랑
을 인식하게 하는 핵심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다음은 SSC의 시행들이다.

- (1) “그리고 오직 긴 밤을 지나 / 당신의 가장자리와, 당신의 둘레를 감도는 빛만을 볼 수 있습니
다”(And onely see through a long night / Thy edges, and thy bordering light!)(41-42)
-「유년」(“Childe-hood”)
- (2) “당신은 우리 영혼과 육체 모두를 / 당신과 혼인시키시며, / 영원한 빛 안에 두십니다.”(Thou
dost unto thy self betroth / Our souls, and bodies both / In everlasting light.)(30-32)
-「성찬식」(“The Holy Communion.”)
- (3) “그러나 그 위대한 빛의 몇 줄기는 / 당신의 책 속에서 이 땅 아래로 비취웁니다.”(Yet while
some rays of that great light / within thy Book)(17-18) -「성령강림절」(“White Sunday”)

위 세 구절에서 본은 빛을 감성적으로 인식하고, 희미하나 지속되는 은총의 흔적으로 묘사한
다. 「유년」에서 “둘레를 감도는 빛”은 전체가 아닌 빛의 경계선만을 본다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 한계와 영적 어둠을 표현하고 있다. 「성찬식」에서 “영원한 빛”은 성찬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빛으로, 성경 속에서 간접적으로 비추어지는 은총을 의미한다. 「성령강림절」에
서 “위대한 빛”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상징하며, 이 구절에서도 성경을 매개로
인간은 빛을 일부 감지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본의 작품에서 빛은 인간에게 위안을 주며,
성경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희미한 흔적으로 드러난다.

정리하면, TTC의 고빈도 어휘인 ‘God’, ‘love’와, 와 SSC의 고빈도 어휘인 ‘day’, ‘light’는 두
시인의 시대적 배경과 신학적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다. 허버트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사랑

을 질서에 놓인 은혜로, 시간을 구원과 종말의 때로, 빛을 계시적 통로로 표현한다. 반면 본은 하나님을 친밀한 인격적 존재로, 사랑을 생기와 치유의 힘으로, 시간을 영적 체험의 순간으로, 빛을 간접적인 은혜로 표현한다. 이처럼 TTC는 질서와 전통에 기반한 내면 성찰과 경건을 언어화하고, SSC는 감각적, 직관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 신의 임재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

코퍼스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허버트와 본의 시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허버트는 ‘사랑의 시인’으로, 그의 시는 내면의 신과 인격적 만남을 그리는 ‘의도적인 교훈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은 ‘빛의 시인’으로, 그의 시는 신의 영광과 초월성을 조명하는 ‘관조적인 묵상시’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두 시인의 어휘 사용에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본은 독자적인 시 세계를 구축한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에드워드가 주장한 허버트와 본의 유사성과 그로사트가 주장한 두 시인의 차별성 모두를 인정할 수 있다. 즉 이전의 질적 연구에서 추측한 두 주장이 코퍼스 기반 통계 분석으로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둘째, 허버트의 시집에서는 ‘God’, ‘love’, ‘man’, ‘heart’ 등 내부적이고 인격적인 어휘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과 내면의 신앙 등이 중심적인 주제임을 보여준다. 반면 본의 시집에서는 ‘day’, ‘light’, ‘love’, ‘God’ 등 외부적이고 감각적인 어휘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 자연 계시와 신앙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적인 주제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빈도 어휘의 차이를 통해 허버트는 국교회의 전통 속에서 질서 중심의 신앙을 지향하여 내부 세계에 집중했고, 본은 종교적 격변기 속에서 외부 세계에 주목하여 체험 중심의 신앙을 형상화했다는 정성적 분석이 정량적 결과와도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심어 ‘God’, ‘love’, ‘day’, ‘light’에 대한 두 시인의 어조를 확인하였다. 허버트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사랑을 질서에 놓인 은혜로, 시간을 구원과 종말의 때로, 빛을 계시적 통로로 함의하는 수식어를 통해 질서 중심적 신앙관을 드러낸다. 반면 본은 하나님을 친밀한 인격적 존재로, 사랑을 생기와 치유의 힘으로, 시간을 영적 체험의 순간으로, 빛을 간접적인 은혜로 함의하는 수식어를 통해 경험 중심적 신앙관을 드러낸다. 이러한 차이는 이상적 교회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버트는 내부로 향해 성도의 영혼을 교회로 삼은 반면, 본은 외부로 향해 자연과 우주 전체를 교회로 삼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코퍼스 분석을 기반으로 허버트와 본의 시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여 질적 연구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코퍼스 분석은 고전 문학 작품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통적인 정성적 해석의 융합은 반복되는 어휘와 주제, 문체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전통적 해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 텍스트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처럼 다양한 분석 방법의 통합적 접근은 문학 연구에서 분석적 방법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풍부한 예문 수집과 다양한 코퍼스 분석 도구 활용으로 연구의 신뢰성과 해석의 깊이를 강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한나 (2022). 조지 허버트의 『성전』 이해: “수많은 영적 싸움”, “완전한 자유”, “낙심한 영혼들”. **문학과 종교**, 27(2), 27-62. DOI : 10.14376/lar.2022.27.2.27
- 박한나, 김영미 (2021). 코퍼스에 기반한 시 텍스트의 분석: 존 던의 『성시』와 조지 허버트의 『성전』 비교. **영어학연구**, 27(2), 61-79. DOI : 10.17960/ell.2021.27.2.003
- 이영규, 최종갑 (2017). 조이스 텍스트에서 드러난 기억의 정치성에 대한 코퍼스 기반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59(3), 129-152. DOI : 10.18853/jjell.2017.59.3.007
- 이종우 (2006). 시인으로서의 재생과 해석의 고뇌: 헨리 보온의 섬광과 부싯돌.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 16(2), 263-290.
- 조신권 (2016). **영국 형이상사 탐구: 존 던으로부터 토머스 트래헨까지**. 아가페문화사.
- 하명정 (2013). 코퍼스에 기반한 문학텍스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9), 440-447. DOI : 10.5392/JKCA.2013.13.09.440
- Durr, R. A. (1962). *On the mystical poetry of Henry Vaughan*. Harvard University Press.
- Herbert, G. (1633). *The temple: Sacred poems and private ejaculations*. Retrieved from <https://www.proquest.com/lion/docview/2147755287/Z200392927>
- Randolph, M. E. (1990). *"A strange love": Theology, sexuality, and subjectivity in George Herbert's poet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Vaughan, H. (1650). *Silex scintillans*. Retrieved from <https://www.proquest.com/lion/docview/2147632303/Z200515495>
- Vaughan, H. (1871). *The works in verse and prose complete of Henry Vaughan, Silurist: Prose* (Vol. 4). private circulation.

Corpus-based Analysis of Poetry Text

Comparison of George Herbert's *The Temple* and Henry Vaughan's *Silex Scintillans*

Hannah Park Master's degre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quantitative findings from corpus-based analysis can support qualitative interpretations. Focusing on George Herbert's *The Temple* and Henry Vaughan's *Silex Scintillans*, this study constructs corpora from each text and analyzes them using WordSmith 7.0 and the CLAWS web tagger. The key methods used include lexical comparison, keyword extraction, frequency analysis, part-of-speech tagging, N-grams, and concordance searches. First, Herbert's poetry is characterized as "intentional devotional poetry," with emphasis on personal encounters with an immanent God, whereas Vaughan's is defined as "contemplative meditative poetry," with focus on divine transcendence. Second, high-frequency vocabulary reveals that Herbert examined inward faith and human experience, whereas Vaughan reflected on nature and spiritual mystery. Third, attributive adjectives modifying key terms, such as *God*, *love*, *day*, and *light* show contrasting theological perspectives. Herbert depicts God as authoritative, love as grace within a divine order, and time and light with eschatological significance. By contrast, Vaughan portrayed God as relational, love as healing, and time and light as symbols of sensory grace. By combining quantitative data with interpretive insight, this study offers a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the poets' theological worldviews and contributes to a broader analysis of 17th-century religious poetry.

Keyword

Corpus, Corpus linguistics, WordSmith, George Herbert, Henry Vaughan